

## 英国 石油생산 21世紀까지 지속

英国은 20세기 말까지 石油의 자급자족을 유지할 것이며, 또 해저 석유와 가스생산은 21세기에 들어가서도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.

이와 같은 전망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최근 개최된 1985년도 유럽 근해산업전시회에서 밝혀졌다.

영국 해저산업 장비업체의 얼굴이기도 한 이 전시회에서는 19개국으로부터 온 1,100여개 회사들이 장비를 전시했고, 함께 열린 회의에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논문 60편이 발표되었으며, 또 세계 각국으로부터 2만 4,000여명이 참관했다.

마가레트 대처首相은 개막연설에서 영국 해저석유산업이 단기현상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주요 연사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.

영국은 현재 北海 영국해역의 29개 유전에서 하루 약 25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세계 5위 석유생산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.

이 현상이 종결하리라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이다. 예컨대 해저석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15년간 유전탐사, 유전개발, 채굴작업 및 정비에 총 600억 파운드(약 72조원)를 투입할 예정이다. 현재의 연간 투입액은 30내지 40억파운드로 추산된다.

그러나 英国은 北海에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. 최근 발급된 9차 면허에 따르면 유전탐색작업이 大西洋의 세틀랜드島 서쪽과 로크올 및 파로우海溝로 옮겨졌다. 업체는 이들 지역에서도 油田발견이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발견된다 하더라도 90년대 내에는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것 같다.

北海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었던 小油田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.

예를 들자면 유럽해저산업전에서 옥시덴탈(Occidental)社는 작은 스카파油田 개발에 1억 5,000만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. 이 유전의 채

굴 가능 석유저장량은 4,200만 배럴이며 최고 일일 생산량이 2만 4,000배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.

셸 UK社도 6억 4,000만파운드를 투자하여 아이더 油田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. 세틀랜드島 동북 187km 해역의 수심 158m 해저에 있는 이 유전의 추정 석유저장량은 8,500만 배럴이다.

아이더 油田에서는 위성생산 시스템을 채택할 계획인데, 이 시스템은 北海石油 생산 장기화를 위한 小油田 개발 촉진에 새로운 차원을 그릴 것이다. 이 시스템에서는 이웃에 있는 2대의 생산 플랫폼을 위성화함으로써 플랫폼 장비의 일부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자체시설을 보충한다. 사실 이것은 北海 최초의 無人 석유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다.

混合衛星 플랫폼 개념이라 불리는 이 생산 시스템은 北海石油 생산지역에서는 새로운 것이다. 첫 단계 처리를 아이더油田에서 한 다음 原油는 파이프라인으로 13km 남쪽에 있는 노드 코모란트 플랫폼으로 옮겨 최종처리를 거친다.

『아이더油田 생산방식은 장래방향을 제시한다. 우리는 현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독창적인 엔지니어링 해결책을 강구했다』고 셸 UK社 탐색·생산 기술담당 이사 브라이언 데이버즈씨는 말한다.

아이더는 세틀랜드島 東北 핵심지역에서 셸社와 엡소(Esso)社가 공동개발하는 최후의 油田이 될 것이다. 영국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바로 영국의 최대 규모의 브랜드 油田이 1971년에 발견됐었다. 통틀어 셸 UK社는 英国 石油·가스 총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.

에너지값이 동等的한 北海유전 개발건수는 올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 같다. 작년엔 15건이 승인됐는데, 금년에는 이미 같은 숫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.

1986년에는 가넷, 밀러, 브레등 北海 成熟지역의 새 油田에서 대규모 유전개발이 있을 예정이며 한편 소규모 개발도 광범하게 이루어진다. \*